

전국의 여성 경제인 1000명, 11일 진도에 모인다

‘전국 여성 경영자(CEO) 경영 연수 행사’ 개최 진도군, 행사 준비 점검 등 ‘추진상황 보고회’

진도군은 '2023 전국 여성 경영자(CEO) 경영 연수 행사'(이하 여성경영자 연수)가 오는 11일부터 2일간 진도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6일 밝혔다.

여성경영자(CEO) 연수는 전국 여성 경제인들의 경영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열리는 국내 최대 여성경제인 교류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진도군 후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현) 주관으로 여성 경제인 10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 첫날에는 개회식, 지역 투자유치 설명회, 특별강연, 진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식 등으로 진행된다.

진도군에서는 행사기간동안 진도복놀이, 서

화 체험, 진도 전복·홍주·구기자 시식, 농수산물 관측행사, 떡메 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준비했다.

이틀째에는 진도의 문화유산에 대해 알 수 있는 진도탐방 등으로 꾸며졌다. 진도군립민속예술단 공연, 진도개 독(DOG)스포츠, 관광지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등을 통해 방문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진도군은 행사에 앞서 6일 군청 회의실에서 군수와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사장 준비, 교통관리, 안전 등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진도군은 연도변 꽃길 조성, 이동진료소 운



영, 환영 현수막 게첨, 공중화장실 관리 등 진도를 찾은 여성 경영자(CEO)들의 방문 편의를 위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진도군 관계자는 “행사기간 동안 여성 경영인들이 즐겁고 안전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진도군에 대한 투자유치, 관광 및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군, 2023년 농업인대학 농업아카데미 졸업식 개최

장흥군은 5일 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장흥군농업인대학·농업아카데미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수료생,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장흥군은 2023년 농업인대학 첨단재전문과 과정과 농업아카데미 지역특화품목 육성과정, 2개 과정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했다. 과정별로 최고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8개월간 이론, 실습, 현장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했다.

올해는 64명의 졸업생이 배출했으며, 교육과정 운영에 공로가 많은 첨단재전문과과정 김은수 회장이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한 우수 졸업생이 장흥군수 표창패를 받았다.

장흥군농업인대학은 선도농업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지난 2007년 제1기를 시작으로 2023년 제17기까지 총 1,1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열의를 갖고 교육에 참여하여 졸업하신 것을 축하하며, 장흥군 농업을 이끌어가는 전문 리더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인구 유입 추진 본궤도 오른다

대구면 구수리 남호마을 인근 16가지 규모 조성 '첫 삽'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남호마을 인근에 16가구 규모의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강진군과 부동산 개발 업체(㈜전노봉은)는 지난 5일 대구면 남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강진원 군수와 ㈜전노봉 관계자를 비롯하여 지역 주민, 입주 예정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의 기쁨

과 기대감을 나누고 안전한 시공을 기원했다.

대구면 남호지구는 산231번지 일원 15,541㎡(4,709평) 부지에 주택단지 16세대, 마을회관 1세대의 신규마을이 조성되는 곳으로(전노봉에서) 2025년까지 약 10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다.

또한 강진군에서도 마을안길 도로개설, 상하수도 설치 등 마을 기반시설 구축과 다양한

행정지원을 더해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도시민 인구 유입에 힘을 보탠다.

해당 부지는 주변 경관이 좋고 바다가 보이는 낮은 구릉지로, 쾌적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훌륭한 입지조건으로 주택단지 16세대 모두 100% 분양 완료되었다. 그 중 14세대는 인근 광주 등 도시민이 분양받아 입주할 예정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나머지 2세대는 청년 가구가 분양받아 입주한다.

남호지구의 100% 분양에는 강진군의 '인구 늘리기 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 강진군에 전입해 주택을 신축코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 신축 지원사업'은 쾌적한 자연환경에서의 전원생활

을 꿈꾸지만 주택 신축이 부담됐던 도시민에게 그야말로 '파격 지원'이 됐다.

여기에 자녀 1명당 월 60만 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 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또한 청년 가구가 강진군을 선택한 큰 이유로 작용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을 위해 대구면 남호지구가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며, “남호지구를 시작으로 신규마을 및 빈집 리모델링, 주택 신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81억 투입 겨울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 총력

완도군은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겨울 가뭄에 대비하고자 농업용수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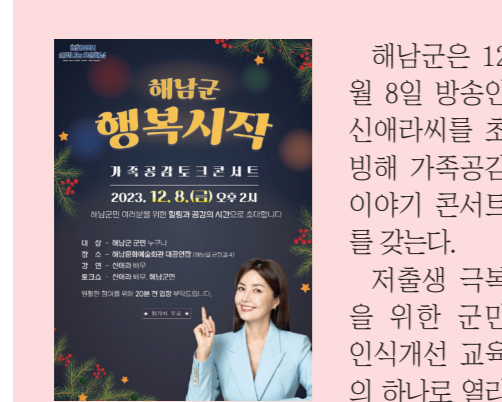
최근 2개월간 관내 평균 강수량은 88.35mm로 평년 강수량 138.7mm의 63% 수준이지만 지난달 5-6일 평균 28.25mm의 비가 내려 가뭄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장기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군은 총 8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배수 개선, 관정 개발, 지표수 보강 개발, 용배수로 정비,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추진했다. 또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별 실정에 맞는 용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수지 및 양수장 가동 등을 통해 가뭄에 대비하고 있다.

가뭄 초기 단계에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망도 정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가뭄 상황과 발작물 생육 상황을 계속 관찰하여 가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년 농번기까지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군, 신애라와 함께하는 가족공감 이야기 콘서트

12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해남군은 12월 8일 방송인 신애라씨를 초빙해 가족공감 이야기 콘서트를 갖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개선 교육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행복의 시작은 가정을 이루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강연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신애라씨는 공개일양과 가족봉사 활동을 통해 모범적인 가정을 꾸려오고 있는 방송인으로, 최근에는 육아 프로그램 등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육아법을 알려며 활약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저출산 문제는 결혼·가족·세대를 아우르는 중요한 문제로 가정의 행복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연말 가족 간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가족·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행복한 해남 만들기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남군민 대상 가족공감 이야기 콘서트는 오후 2시부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